

사나래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가장 넓은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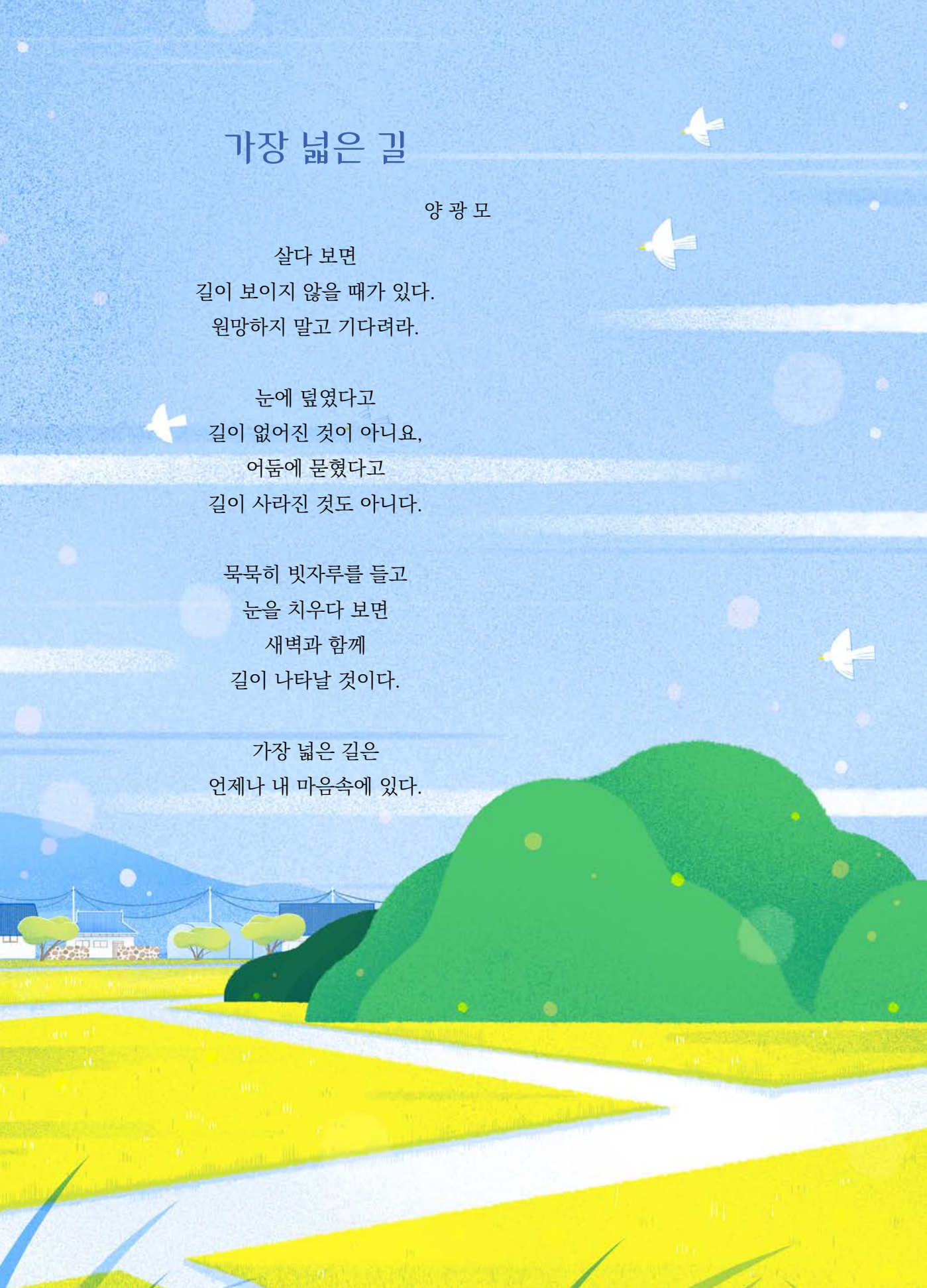
양 광 모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에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CONTENTS



인사말

◦ 중앙보훈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이준용	4
---------------------------------	---

호스피스 사람들

◦ 김미선 호스피스 총괄과장	5
◦ 황연희 간호과장	7
◦ 고현주 간호사	9
◦ 박소정 간호사	10
◦ 홍순규 의료사회복지사	11

호스피스 자원봉사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홍근숙	12
------------------------	----

감사의 글	14
-------------	----

음악요법 이야기	16
----------------	----

함께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 추억 만들기	18
◦ 세시풍속	20
◦ 호스피스 알리기	23

호스피스·완화의료 배우기

◦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캠프	24
◦ 호스피스·완화의료 팀실천학습과정	25

사별가족과 함께	26
----------------	----

사나래 소식통	28
---------------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29
------------------	----

호스피스 사나래 후원회	30
--------------------	----

안녕하십니까?

중앙보훈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이준용입니다.

지난 2023년은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진 기쁜 해였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동에도 3년여만에 가족들과의 대면 면회가 재개되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등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사나래 소식지에는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이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는 호스피스 팀원들의 진실한 마음을 적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함께 공감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가 어느덧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한 1999년 이래로 환자의 존엄한 생애 말기를 위한 노력들이 모여 2022년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 호스피스 전문기관’ 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으며,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동을 중심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연계하여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환자, 가족과 함께 마스크 없이 꽃구경을 갈 수 있는 소중한 봄날의 소풍을 기다리며, 중앙보훈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앞으로도 말기 환자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여러분 모두 청룡처럼 강인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보훈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이 준 용



파란만장한 2023년을 보내고 화려한 2024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중앙보훈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총괄과장 김미선입니다.

여느 해나 마찬가지로 올 해도 공사다망하고, 파란만장한 한 해였습니다.

말기 암환자와 가족이 함께 계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여기저기서 불쑥 불쑥 터져 나오는 코로나19의 여파들..... 그로 인해 말기환자와 가족, 그들을 돌보는 병원 의료진 등 모두에게는 매우 조심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김미선 호스피스 총괄과장

병원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병원이라는 환경에서는 아직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만남도 갖을 수 없었고, 호스피스의 꽃이라 불리는 자원봉사자들의 방문활동도 중단되었으며, 환자와 가족의 행복한 삶의 여정에 함께하는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함에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올 해 우리 호스피스병동에서는 마치 아주 처음 호스피스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조심스럽게 한발 한발 내딛게 되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가족면회를 시작하게 되어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면회 예약을 통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분 동안(4시~4시 30분), 침상 곁에서 환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이용할 수 없지만 그나마 매일 매일 면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의 꽃이라 불리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시작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부드럽고 세심한 손길로 환자들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성스런 마음을 담아 따뜻한 차를 대접하는, “찾아가는 호스피스 보훈다방”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발마사지도 해 드리고, 외롭게 병상을 지키는 “환자와 보호자의 쓰레기통” 역할도 담당하며,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지지해 주는 말벗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회생불가의 상황에서 죽음과 마주한 환자와 가족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한 줄기 밝은 햇살을 비춰주시는 성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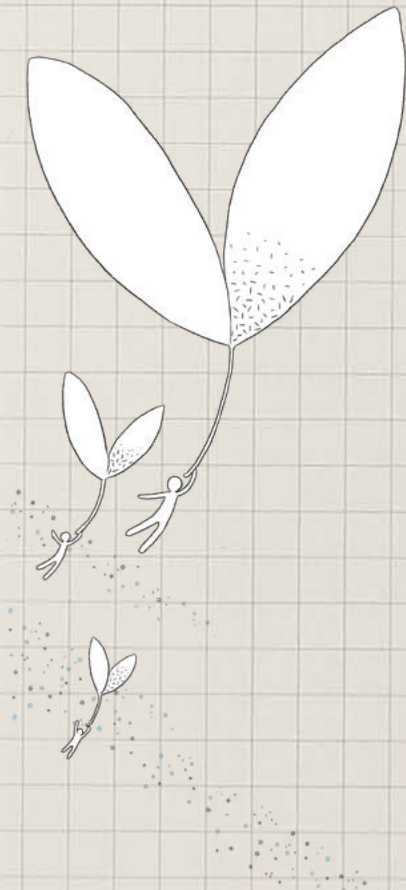
자(원내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 전도사님, 스님)들의 방문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며 마지막 인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 하나가 요법치료 시간입니다. 미술치료요법과 음악치료요법, 그리고 심리치료요법입니다. 이 또한 매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는 교육도 실시하고, 입원 환자들을 돌보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웰컴돌봄키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돌아다보니, 쉼 없이 무엇인가를 매일 매일 시작해 왔습니다.

그건 아마도, 하루가 한 달 같은, 호스피스환자들과 가족을 위한 아름다운 첼로 연주를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호스피스병동에는 새로운 또 한분이 입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호스피스~~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서 근무한지도 벌써 5년째입니다. 주임간호사로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7월부터 호스피스병동에 근무하게 되었고, 올해 2023년 7월 간호과장으로 승진하여 호스피스병동을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췌장암 말기 진단 받고, 하늘나라로 간지도 어언 14년이 되어갑니다. 응급의료센터에서 정신없이 근무하던 시절에 언니의 암 선고는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힘들어하는 언니를 설득하여 치료를 받게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항암 4개월 만에 항암을 중단하고 대체요법 하겠다는 언니의 강경함에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고, 자주 보는 것만이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청주를 오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호스피스를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곤 합니다. 이를 계기로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연희 간호과장

호스피스병동에서 근무하며 저마다 다른 속도로 하루하루 달라지는 환자를 돌보며 환자와 그의 가족들을 지지하고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호스피스로 오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결정하기까지 그 마음 또한 무거웠을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환자와 가족들은 이제는 정말 마지막인가? 뭔가를 더 해 볼 수는 없나? 하며 끝을 생각하며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대 쉬운 마음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보낼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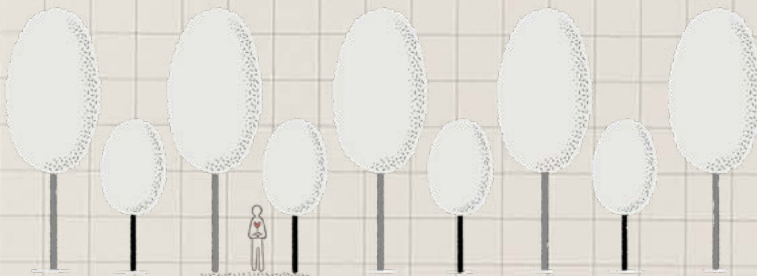
처음에 호스피스병동으로 오시면 긴장과 경계의 눈빛이었다가 하루하루가 지나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 등 다학제 팀의 정성어린 돌봄으로 환자의 고통이 완화되면서 가족들의 얼굴도 서서히 풀어지고 미소도 지어 보이십니다. 환자의 고통이 조절되니 가족의 마음도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겠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호스피스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전보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이 많이 홍보되었다지만 여전히 호스피스를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곳, 아무것도 안

해주는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내다 보면 호스피스에 온 걸 후회하는 분, 임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호스피스 케어에 대해 고마움과 만족감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 저마다 다른 아픔 속에서 최대한 고통없이 지내다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매년 300여 명의 환자분들을 보내드리면서 간호사들의 소진도 많지만, 그들은 우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매일매일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을 돌보며 오늘도 고통 없이 하루를 보내고 좀 더 나은 생각으로 충만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손길을 내주며 행복한 동행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병원을 경험하신 환자와 보호자분들은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이야기 해주시기도하고, 아버지를 보내고 어머니를 보내면서 감동 받았다고 다른 이에게 소개해 주시고 싶다는 사별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호스피스병동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삶의 마지막 여정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돌아봐주고, 들어주고, 곁에 함께 있어주는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을 지키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혈액종양내과 병동에서 간호사로서의 첫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내기 간호사에게는 혈액종양내과라는 용어조차 어렵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암환자와 그 가족들은 어렵기만 한 존재였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간호를 해야 할지 모든 것이 어렵기만 했습니다. 물론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내기 간호사는 두려움의 존재 였을 것입니다. 암 진단을 받기 위해 온 환자, 암을 진단 받고 치료를 하기 위해 온 환자, 암과 관련된 증상조절을 하러 온 환자 들을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간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그 곳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현주 간호사

건강했던 사람이 암 선고를 받고 힘든 암 치료를 하고, 6개월 미만의 여명을 살아가면서 임종을 받아드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간호하면서 호스피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의 관심을 갖게 되어 공부를 시작하였고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 순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령주령 주사약과 기계들을 달고 있는 모습일까? 병원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바쁘고 여유가 없어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 의료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일까? 과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도록 도와드리고 간호하고 싶어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고 배울 것들이 많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병동으로 출근하는 매일 매일이 저에게는 너무나 뜻깊고 소중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는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활동보조사, 요법프로그램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환자, 보호자님들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을 언제나 지키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소정이 덕분에 나는 진짜 행복해

중앙보훈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72병동 3년 차 간호사 박소정입니다.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았던 신규 간호사 시절 ‘간호사가 정말 나의 길이 맞나?, 병동의 일원으로서 간호사로 독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잦은 실수에도 믿고 지켜봐 주신 간호과장님, 3개월간 백지 같은 저에게 모든 걸 알려주신 프리셉터 선생님과 동료 선생님들, 아드님께 저를 손녀라고 소개해 주신 박O만님, “소정이 덕분에 나는 진짜 행복해”라고 말씀해 주셨던 손O만님, 모든 간호사에게 “소정이냐?”라고 물어 보셨던 김O경님 등 많은 환자분들 덕분에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책장암으로 돌아가신 제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막연한 항암치료가 아닌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빨리 알았더라면...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이 제 할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더 자신했습니다. ‘나는 어떤 간호사보다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은 공감과 위로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임종을 보내드릴 때마다 항상 환자분들에게 마음속으로 말씀을 건네곤 했습니다. ‘환자분, 저의 간호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희 할아버지께 전해주세요. 당신의 손녀는 멋진 간호사가 되었다고요. 안녕히 가세요.’

지난 2월 저는 제 가족 중 한 분이 72병동에 입원하셨고 할아버지는 누리지 못하셨던 진정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 식구들의 막대한 배려로 그 누구보다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면서 벚꽃이 다 저가는 4월, 하늘로 보내드렸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던 한 사람의 보호자,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로서 살아가는 지금, 저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환자는 당연하고 소진된 보호자들까지도 진심으로 간호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소중하고 의미있는 삶의 과정을 함께합니다.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당연히 여겨왔던 평범한 일상에 제약을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올해 정부가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다시금 예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도 자원봉사활동과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며 예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아감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별가족을 연 4회 만날 수 있는 소중한 한해였습니다. 중앙보훈병원 특성 상 환자 중 국가유공자의 비중이 높아 국립묘지인 현충원 또는 호국원으로 안장되는 경우가 많기에 현충원 또는 호국원에 방문하여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모임을 마련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엔 국가유공자 외의 사별가족분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추모의 날 사별가족모임도 진행하였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 홍순규

사별가족모임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땐 사별가족들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할지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게 되었을땐 가족분들께서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간 어떻게 지내왔다 라는 말씀과 동시에 혼자 감당하지 못할 일을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있어 환자를 잘 보낼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표현하시곤 했습니다.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간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서 근무하며 배우고 느낀 생각들과 감정들은 그 어느 것보다 값지고 소중하며 중요한 삶의 교훈이라고 느낍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올 한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홍근숙

I. 자원봉사의 의미

봉사는 자신의 시간, 노력, 능력 등을 이웃이나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는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봉사활동은 다양한 형태와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육 봉사,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 봉사,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복구 작업을 하는 구호 봉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 정화나 동물 보호 등의 활동도 봉사 활동에 해당됩니다.

봉사활동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이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취감을 느끼며,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격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I. 봉사를 시작한 계기와 느낀 점

봉사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으로써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봉사활동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것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해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봉사활동을 시작한 계기로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여 경험을 쌓고, 미래의 진로나 취업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감과 선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살면서 마음 속 한 자리에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삶은 아니었기에 몇 달 전까지 직장생활로 참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사회에서 나이라는 타이틀로 밀려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젠 내가 이런 나이가 되었구나라는 것에 잠깐 힘도 빠졌었습니다. 몇 달 동안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저것 다양한 강좌를 들으려 다

니다가 지인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 교육이 있다고 같이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에 처음에는 그냥 교육이라도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병원에 와서 교육을 듣게 되었고,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봉사란 크게 봉사랄 것도 없는 차 봉사인데, 차츰 다른 분야도 배우고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만난 여러 봉사자 선배님들, 그리고 특히 의료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의사, 간호사님들을 보니 모두 밝은 모습으로 맡은 일을 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나 스스로 봉사에서 얻는 기쁨도 크지만, 주위에 여러분들의 따뜻한 모습을 보는 것이 요즘 저에게는 많은 위안을 얻는 것 같습니다.



11월 22일 사후가족모임 행사에 참석했을 때 저는 가족의 손에 촛불을 전해주는 봉사를 했었는데. 촛불 하나하나를 손에 전에 드릴 때마다 뭔가 몽클몽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행사 참석자 모두 위로가 되는 의미가 참 큰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작게나마 이런 일을 했음에 뿌듯한 기분 하나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계기에서든, 봉사활동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병동은 말기 암 환자 도는 다른 말기 진환으로 인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위한 병동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분들이 사람을 스스로 없이 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을 줄 수 있고, 잠시나마 따뜻한 말 한 마디로 위안이 될 수 있다면 봉사자로서 더 바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 병동 봉사는 매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동시에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스스로 터득해 나가야 할 뉘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봉사의 기회를 주신 주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파이팅이십시다.





감사합니다.

일년동안 꾸준히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보살핌으로 하루하루 잘 견뎌온 거 같습니다.

삶의 여정이 지치고 힘들 때 그댈들의(완화의료팀) 메시지가 많은 위로가 되었구요.

상실노트도 명절선물도 그리고 위로의 카드도 나에게는 삶의 여백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나 봅니다.

이젠 감사함을 느끼고 소중함을 일깨우고 빈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느낌이 있어 나혼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도록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아무도 모를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몇자 낙서처럼 답 해봅니다.

일년동안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꿨습니다.

고 000 배우자 000 드림

안녕하세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던 박OO님 가족입니다.

그곳은 너무나 힘든 곳인데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명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고 싶어요 사회사업실 선생님들의 봉사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진심어린 사랑 간직할게요. 선생님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됐어요.

늘 건강하시고 많이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간호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사랑 누구한테도 자랑합니다.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고 000 님 배우자 000

수연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올 한해도 다 흘러갔네요...

수연쌤께서도 올 한해 여기저기 환자분들 돌보려 다니시느라 엄청 고생 많으셨을 한 해로 여겨집니다.

특히 코로나 끝나고 대면진료가 더 수월해졌으니 가정호스피스 특성상 얼마나 숨가쁜 한해가 되셨을지...

무엇보다 수연쌤한테 너무 감사하고 항상 늘 고맙단 이야기밖에 못 드리는 것 같아서 그것마저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단 말씀 다시 전해드려요.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남은 저희 가족도 마음으로 응원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2024년에도 수연쌤 그리고 가족분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리고 내년에 시간 되실 때 꼭 엄마랑 같이 식사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

고 000님 아들

음악요법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 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10월 중순 쯤이면 사별 가족들과 함께 현충원 행사가 있다. 이번엔 대전이 아닌 서울의 국립현충원이라 꼬불꼬불한 뒷길로 들어서자 푸른하늘과 웅장한 충혼탑은 더할 나위 없이 위엄해 보였다. 같은 하늘이지만 현충원의 가을 하늘은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장소이다. 나는 가지런한 잔디가 있는 공원 한켠에 사별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벅찼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긴 노래가 만들어질까~~병동에서 환자와 함께 음악치료로 만났던 보호자들이 무척이나 반겨 주셨다. 갑작스런 이별로 슬픔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가을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음이 담긴 가사에 눈시울을 붉히고 함께 하였던 과거를 회상하였다. 그리움의 감정들도 털어내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다시 건강하고 굳건하게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사별가족 모임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다. 현충원에서의 사별가족 모임을 만들어 주신 서울중앙보훈 병원 호스피스 병동 다학제팀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위해 분주 하셨을까하는 고마움을 전하며 나도 고인들을 위해 이 아름다운 현충원의 사계절을 맞이하며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기도해 본다.

팬데믹으로 인해 2년만에 가정 호스피스를 시작하였다. 이제 병원도 코로나 전으로 슬슬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시기인것 같다. 가정 호스피스 간호사와 함께 반가움에 인사 나눌 시간도 없이 눈빛만 교

환한 채 환자에 대해 브리핑 받은 후 가정방문을 하였다. 어머니! 현관에서 바라보는 거실은 브라이덜샤워 파티처럼 연출한 파티룸 같았다. 뒤이어 연핑크 드레스와 왕관, 그리고 미스코리아띠를 두루신 환자님이 나오셨다. 백발에 왕관이 얼마나 잘 어울리셨는지^^



환자는 저녁에 있을 생신파티에 자녀와 손녀가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 환자는 평소 부산시립합창단에서 소프라노를 하셨다고 하시며 가장 좋아하시는 "Mother Of Mine"을 원어로 부르셨다. 힘이 없으셔서 더욱더 가느다란 피코리 같은 고음이 듣는 나에게도 감동이었다. 가까이 보니 하얀 피부에 속눈썹이 인형처럼 올라가 있는 아름다우신 어르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병동에서 여러 장르의 곡을 환자마다 맞춤형으로 불러드리며 이야기를 연출하는 세션을 한다. 그중에서 특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공통으로 불러드리는 곡이 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침 이곡을 성가대에서 연습하는데 부를 때마다 마음에 와 닿는다.

건강이 악화되어 생명력이 다한채로 누워계신 분들에게 외부와의 연계로 신선한 산소가 운반되는 성가곡의 의미를 전달해 드리는 나로서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심을 다해 위로받길 바라며 불러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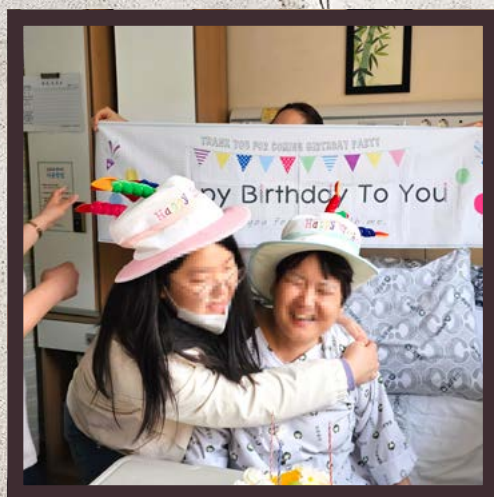
추억 만들기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환자와 보호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소원 들어드리기, 생신, 기념일, 포토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여기가 보존사진관이야.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한
사진 찰칵!





생일파티



아버님은 파장면이
먹고싶다고 하셨어!_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만들기
(소확행)

정월 대보름

음력 1월 15일은 정월대보름이다.

달은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대보름은 설과 같은 중요한 명절로 여겨왔다. 환자의 평안을 비는 마음으로 부럼을 준비하여 복주머니에 넣어서 시원한 식혜와 수정과와 함께 환자와 보호자에게 대접하였다.

정월대보름 소원카드에 각자의 소원을 적어보고 뒷동산에는 올라가지 못하지만 창밖의 달님에게 소원을 빌어보았다.



어버이날

날을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이 없으랴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보니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아쉬운 마음에 자녀들을 대신해서 꽃시장에서 화사한 카네이션을 준비하였다.
화사한 손수건도 함께 준비해서 아버님의 가슴에 어머니의 가슴에
아들과 딸을 대신하여 사랑을 전해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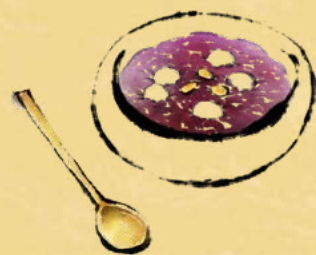
추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
가을 저녁, 즉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으로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맞이하는 추석은 더욱 풍요롭고 애뜻하다.
알록달록 송편과 시원한 식혜, 그리고 병동 사람들의 덕담까지...
행복한 추석!



동지

일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동지.
“동지팔죽을 먹어야 진자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이 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동지 팔죽은 꼭 먹어야 한다.
세시풍속을 하나하나 챙겨서 맛난 것도 먹고
서로 정을 나누다 보면 한해가 지나간다.





'암성통증, 참지말고 말씀하세요!'

5월 25일 암성통증과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통증캠페인이 열렸다.

암환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암성통증은 적절한 통증 치료를 통해 90% 이상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배우기

2023 간호대학 교수를 위한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캠프

- 일시: 2023년 4월 28일
- 장소: 중앙보훈병원 컨퍼런스룸, 호스피스병동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전문인력 호스피스·완화의료 팀실천학습과정(QELCA®)

▶ **팀원 구성** 트레이너 2인 (전문의, 가정호스피스 전담간호사)
참 가 자 4인 (전문의, 병동과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 **5일 프로그램** (2023.3.10 ~ 2023.4.7)
실습: 동백 성루기병원, 충남대학교병원

▶ **실천학습** (2023.4~2023.9)
월 1회, 6차 시행

말기 돌봄이 어려운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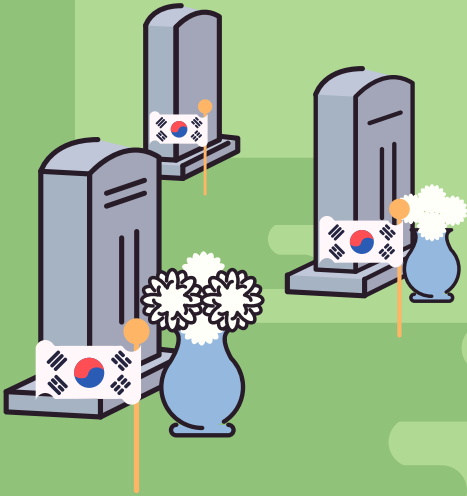
한국에서 말기 돌봄 향상을 위한 필요성

1. 호스피스의 인식부족, 잘못된 지식
2. 성직 문제가 우선적으로 생각된다.
당사자는 연명에 대한 생각이 강한 것 같다.
(이해의 정보 부족)
3. 병원은 치료를 받으러 오는 곳; 치료 받지
않아도 병치되는 것 같다. (잘못된 점)
4. 가족들이 말기암환로 본인에게 고지하기
힘들어함.

우리기관에서 말기돌봄 향상을 위한 필요성

1. 병원 특성상(국가유공자): 병원에 부담 없이
치료 니즈가 높다
2. 고령연 관개로 듣고 생각하는 것만 굳건하게
행각
3. 호스피스과로 전과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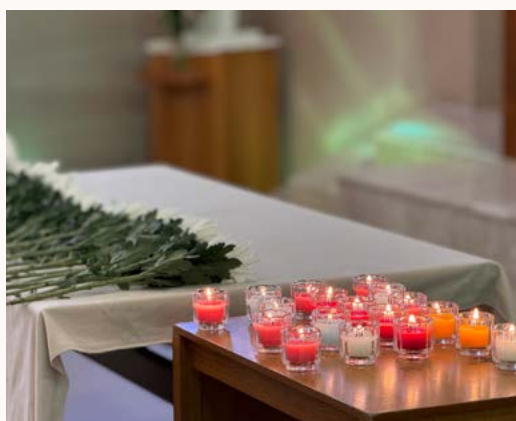
현충원

방문





추모의 날



이준용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국가보훈부장관상 수상

중앙보훈병원의 호스피스 서비스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이준용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이 국가보훈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중앙보훈병원 인턴·레지던트 출신 이준호 대표원장(양재숲정형외과) 1천만원 기부

중앙보훈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수련한 이준호 대표 원장의 뜻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 1천만원을 기부하였다.

기부자 이준호 대표 원장(양재숲연세정형외과)은 “현대사회에서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지키는 호스피스의 역할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나의 손길이 이들의 편안한 여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2023년 10월, 코로나19가 끝나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재개하였다. 10월 4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보수 교육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드디어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나선다.



2023 호스피스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

- 주제: 호스피스·완화의료 개요, 말기환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돌봄, 의사소통
- 일자: 2023. 10. 17. - 장소: 컨퍼런스룸
- 참석인원: 12명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보수 교육 1차

- 주제: 호스피스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 자원봉사자의 역할
- 일자: 2023.10.04. - 장소: 2관 2층 교육장
- 참석인원: 10명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보수 교육 2차

- 주제: 림프 발마사지 이론과 실습
- 일자: 2023.12.14. - 장소: 컨퍼런스룸
- 참석인원: 10명

사나래 호스피스 후원회원님 안녕하세요?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앙보훈병원 사나래호스피스 후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말기 환자와 가족을 위해 후원금을 지원합니다.

2023년에는 병동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환자케어용품과
환자 임종 후 장례비 및 사별가족의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 사나래는 '천사의 날개'라는 순우리말입니다.

2023년도 후원금 입금·지출 내역

단위: 원

수입			지출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18,641,765	후원 사업 지출	의료비 지원	1,351,870
후원금	일시금	14,617,579		장제비 지원	1,000,000
수입	정기 후원	3,167,000		환자의료물품 지원	782,150
이자수입	결산이자	18,550		병동 보호구 보관함 지원	492,000
				코로나 검사키트 지원	350,430
				소원들어드리기(결혼식)	321,280
				가족실 정수기 지원	319,800
				기 타	85,000
수입 합계		36,444,894	지출 합계		4,702,530
잔액					31,742,364

사나래 호스피스 후원 안내

나라를 위해 몸 바친 국가유공자와 생애 말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말기암환자와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9580903066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직접납부 |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실에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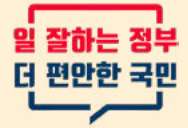
★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T. 02-2225-1781

♣ 기부하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보훈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입니다.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

05368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중앙보훈병원

Tel 02-2225-1781 www.bohunhospice.or.kr

발행처 중앙보훈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